



Very Rashid!

인테리어, 가구, 코스메틱 패키지, 레스토랑, 호텔. 하나로 묶을 수 없는 이 분야의 나열은 산업 디자이너 카림 라시드(Karim Rashid)의 경력을 말해주는 단어들이다. 그리고 여기에 최근 추가된 단어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패션. 그가 수영복 전문 브랜드 아레나(Arena)와 손잡고 스포츠 웨어 라인을 선보였다. 에디터 유소라 사진 이충규

그는 생각보다 요란하게 등장하지 않았다. 자신을 보기 위해 모인 사람들을 향해 유명 인사다운 예의 찬 미소를 보여 주는 대신 그 무리에 자신을 섞었다. 핫 핑크 바지와 핑크톤의 운동화, 검은색의 두꺼운 볼테 안경을 걸친 그의 모습은 갤러리에 전시된 그의 작품 중 하나처럼 어우러졌다. 이번 아레나 라시드 라인 론칭 기념 기자회견은 그렇게 자연스런 분위기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인터뷰 중 방금 생각난 문장을 말하느라 통역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다음 말을 시작해 통역사를 난감하게 만들기도 하였고, 질문을 한 이에게 도리어 질문을 던지기도 하였다. 그리고 가끔은 형식적인 기자회견이 지루한 듯 장난스런 표정을 짓기도 했다. 그가 바로 카림 라시드였다!

사실 그가 패션 디자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80년대 말 캐나다에서 'Babel Fashion Collection'이라는 패션 브랜드에서 아트 디렉터로 활동한 적이 있었다. 그 이후로도 그는 패션 라인에 꾸준한 관심을 가져왔고 마침내 아레나와 함께 일하게 된 것. 하지만 사람 몸에 걸치는 옷을 디자인하는 것은 제품을 디자인하는 것과는 분명 다를 터이다. "기존 내 작품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시대와 걸맞은 디자인 컨셉트로 작업했다. 디지털과 팝 아트를 접목시키되 제품의 특성상 몸의 구조와 유연하게 어울리도록 했다. 몸의 형태는 입체적인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대부분의 셔츠는 어깨선이 일직선이다. 내가 디자인한 셔츠는 몸의 구조와 맞도록 어깨선이 커브 모양을 그린다." '사용자'의 시각에서 디자인했다는 그의 말은 그의 기존 제품을 떠올리게 한다. 사람은 보통 똑바로 앉지 않고 목을 뒤로 젖혀 편히 앉으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의 자세를 고려해 뒤로 젖혀 앉을 수 있도록 디자인한 의자가 그중 하나.



1 카림 라시드가 디자인한 문구류.
2 감각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카림 라시드의 디자인.
3 출판사 '열린책들'의 문학전집 Mr. Know의 책꽂이.
4 새롭게 론칭한 아레나 - 라시드 라인.

"일상생활에서의 모든 것에 흥미와 에너지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편안하고 아름다운 생활 소품은 즐거운 활력소가 된다. 그래서 작은 휴지통 하나라도 디자인을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 나는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고 싶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 노력한다." 즐거움을 배제하지 않는 그의 디자인은 그래서 심각하지 않고 경쾌하다. 그렇다고 심각하지 않다는 것이 진지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음료수 등을 쏟아도 흘러내리지 않게 모서리를 디자인한 테이블은 심플해 보이지만, 여러 번의 시험을 거쳐 무려 2년 만에 완성되었다.

이집트인과 영국인 사이에서 태어나 글로벌한 성장 환경을 거쳤기 때문일까. 그에게는 세계를 넘나드는 클라이언트의 특성과 문화, 그리고 그들의 니즈를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들이는 일이 어려워 보이지 않는다. 수십 개의 다양한 분야의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면서도 여전히 도전해보지 못한 분야가 많다고 말하는 걸 보면 말이다. 그는 언젠가 장난처럼 '카림 라시드 사전(Karim Rashid Dictionary)'을 출간하고 싶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 Creemy를 Kreemy로, Catalog를 Katalog로 바꿔 쓰는 등 언어마저 디자인하려는 그다운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정말로 사전이 출판된다면 그는 사전에 'Designocracy(디자인 민주주의)', 'Blobject', 'Digital Karft' 등 자신이 고안한 2000개의 새로운 단어를 담을 것이라고 했다. 혹시라도 내게 그 사전에 단어 하나를 추가할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그곳에 '라시드스럽다(Very Rashid)'라는 단어를 추가하고 싶다. 아마도 그 뜻은 '글로벌한 마인드를 가졌으며 끊임 없이 창의적인 작업을 추구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을 표현하는 형용사'쯤이 되지 않을까. ☺

